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3월 15일까지 본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를 선보인다. 사진은 전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청자 보살상과 나한상', '청자 사자모양 조각', '청자 새모양 주자' 등 모습.

## 1000년 전 생명 넘치는 비색 '상형청자' 광주를 찾다

동식물의 다양한 형상을 포착해 생명력 넘치게 표현한 '상형청자'. 상형청자는 그 형상과 특유의 아름다운 비색이 어우러져 한국미술의 높은 기술적 성취와 독자적 미감을 보여주는 최고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형청자의 대표적인 국보 '청자 사자모양 항로'와 '어룡모양 주자', 보물 '청자 죽순모양 주자' 등 100여점을 조망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두 번째 순회전을 오는 3월 15일까지 본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이번 순회전에서는 상형청자의 제작과 항우·소재와 쓰임·종교적 맥락에 따른 사용에 이르기까지 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총 4부로 펼쳐낸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상형청자 114점 전시를 갖는다.

먼저 제1부 '상형청자란'에서는 흙으로 특정한 형상을 빚는 '상형'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고려 사람들에 의해 탄생한 상형청자를 살펴본다. 당시 사람들은 그릇에

아울러 제3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

다양한 형상을 유기적이고 정교하게 표현해 조형성과 실용성의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풍부한 감성이 깃든 상형청자를 일반 청자와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제2부 '제작에서 향유까지'는 고려 왕실과 상류층이 향유했던 다양한 상형청자를 살펴보고, 상형청자의 제작과 유통·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조명한다. 1123년(인종) 고려에 온 북송 사신 서공은 고려의 사자모양 항로를 보고 감탄한 내용을 생생히 기록했다. 당시 고려 상류층에 유행한 귀족 문화는 상형청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상형청자 조각들은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장인의 무수한 실험과 도전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강진 사당리 가마터, 부안 유천리 가마터 등 주요 가마터 출토 유물을 통해 당시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태안과 진도 바닷길에서 건져낸 상형청자는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벗길로 운송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이제 제3부 '상형청자란'에서는 흙으로 다양한 형상을 빚는 '상형'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고려 사람들에 의해 탄생한 상형청자를 살펴본다. 당시 사람들은 그릇에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순회 전시

3월 15일까지 특별전시실서...청자 114건 131점 선봬

국보 '청자 사자모양 항로' 주목...4부 구성 프로 다채



국보 '청자 사자모양 항로'

'청자 기린모양 항로'

서는 때로는 권위와 지위의 상징으로, 때로는 곁에 두고 싶은 자연을 대신하는 별으로서의 상형청자에 주목한다. 다양한 표현이 담긴 상형청자에서는 고려 사람들의 높은 예술적 감각을 살핀다. 전시는 크게 상상의 동물을 대상으로 만든 상형청자와 주변의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 제작한 상형청자로 나눠 살펴본다. 상상의 동물인 용·기린·사자 등이 표현된 상형청자는 예로부터 상서롭고 신성하게 여긴 다양한 동물들을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상형청자로 표현한 오리·물고기·원숭이 등과 북송아·석류·연꽃·참외 등 주변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즐기고 감상했던 품안의 자연을 간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에서는 실용과 예술의 범주를 넘어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거나 신앙적 배반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확장된 상형청자를 다룬다. 당시 도교와 불교의 이해에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나 불상도 청자로 제작한 가운데, 서왕모 신앙을 배경으로 만든 인물형 청자나 나한상 모양의 청자들은 앞에서

본 상형청자와 또 다른 차원의 시각적 경험과 의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이해를 돋기 위해 준비된 '온라인 전시설명서', '어린이용 디지털 전시 가이드' 등 연령별 온라인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CT로 본 상형청자', '만져보고 상상하는 고려 상형청자' 등 공간도 마련돼 상형청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촉각을 통해 특별함을 가져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 개막을 기념해 전시기간 매달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랜만 인증샷 이벤트를 시작으로, 특별전 소문내기와 상형청자 퀴즈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최홍선 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1000년 전 고려 사람들이 향유하고 사랑했던 세상에서 고려청자의 비색과 형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개관한 도자문화관의 상설전과 더불어 도자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정재경 기자 view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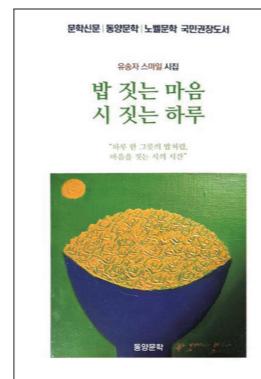
## 사랑의 헌정...심신 지친 이들에 전하는 위로

유송자 첫 스마일 시집 동양문학서 출간

감사의 언어 투영...4부 구성 100편 수록

전직 간호사에 이어 보험 전문가로 활동해온 유송자씨가 첫 스마일 시집 '밥 짓는 마음 시 짓는 하루'를 동양문학에서 최근 폐냈다.

'하루 한 그릇의 밥처럼, 마음을 짓는 시의 시간'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시집은 그동안의 고민과 열정으로 35여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다. 시인은 '우리 부부에겐 은행이 있다/ 이름은 '사랑의 적금'/서운함을 빼고/ 감사를 더하며/매일 마음을 예금한다/ 를 지향. 서정적인 향기를 품은 시집을 통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를 담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기를 끊임없이 염원하는 의식이 곳곳에 투영돼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제11부

제12부

제13부

제14부

제15부

제16부

제17부

제18부

제19부

제20부

제21부

제22부

제23부

제24부

제25부

제26부

제27부

제28부

제29부

제30부

제31부

제32부

제33부

제34부

제35부

제36부

제37부

제38부

제39부

제40부

제41부

제42부

제43부

제44부

제45부

제46부

제47부

제48부

제49부

제50부

제51부

제52부

제53부

제54부

제55부

제56부

제57부

제58부

제59부

제60부

제61부

제62부

제63부

제64부

제65부

제66부

제67부

제68부

제69부

제70부

제71부

제72부

제73부

제74부

제75부

제76부

제77부

제78부

제79부

제80부

제81부

제82부

제83부

제84부

제85부

제86부

제87부

제88부

제89부

제90부

제91부

제92부

제93부

제94부

제95부

제96부

제97부

제98부

제99부

제100부

제101부

제102부

제103부

제104부

제105부

제106부

제107부

제108부

제109부

제110부

제111부

제112부

제113부

제